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일반 시민에도 개방

체육관·연습실·잔디광장 등
야간·주말 무료 이용 가능
24일 '가을밤 음악회' 행사

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10월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문호를 더욱 넓혔다. 그동안 타운 운영시간(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내에서 60세 이상 회원들만

이용 가능했는데, 이달부터는 야간과 주말에 개인·단체 등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운영 시간과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곳은 다목적체육관과 프로그램실, 야외체육시설, 잔디광장 등이다. 실내에서 농구, 축구, 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동호회 등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자율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실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는 대형 거울과 원목마루가 설치되어 춤, 공연 등을 연습하기 좋다. 야외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야외배드민턴장, 야외체력단련장 등은 연중 무료 개방돼 지역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3000여㎡ 규모의 잔디광장과 산책길에서는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문희봉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주이용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 개방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시민 공유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수요와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개방 폭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오는 24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을밤 추억찾기 음악여행’을 잔디광장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왼쪽부터 김운기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김민 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남희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장, 손현아 대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희봉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김중신 효령타운 일자리지원팀장

광주복지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

노인 역량개발·일자리 활성화 업무협약

(재)광주복지재단(대표 신일섭)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가 광주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역량 개발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8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본 협약에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남희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 김운기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60+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이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지원 등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유해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60+교육센터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설계를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거둔 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 우승팀 지난 6일 광주시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기간 열린 '제12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방승댄스(방탄아줌마)' 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대회에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총 58개 팀 11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발휘했다.

광주시 김장철 앞두고 다양한 김장·김치행사

내달 23일까지 체험프로그램
이달 김치축제·12월 김장대전

다들 김장철을 앞두고 광주시가 김장관련 다양한 시간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참여할 수 있다.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은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실 2개로 나눠 김치인문학 강의, 실기실습, 맛평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육참여는

광주시는 김장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광주김치타운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참여할 수 있다.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은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실 2개로 나눠 김치인문학 강의, 실기실습, 맛평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육참여는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접수는 전화(광주김치타운 062-672-2200)로만 받는다. 세부 내용은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12월에는 각 가정과 기업체에서 김장을 직접 담글 수 있는 '빛고을 김장대전'을 실시한다. 관련 내용은 광주세계김치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

북구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

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측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해당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는 2011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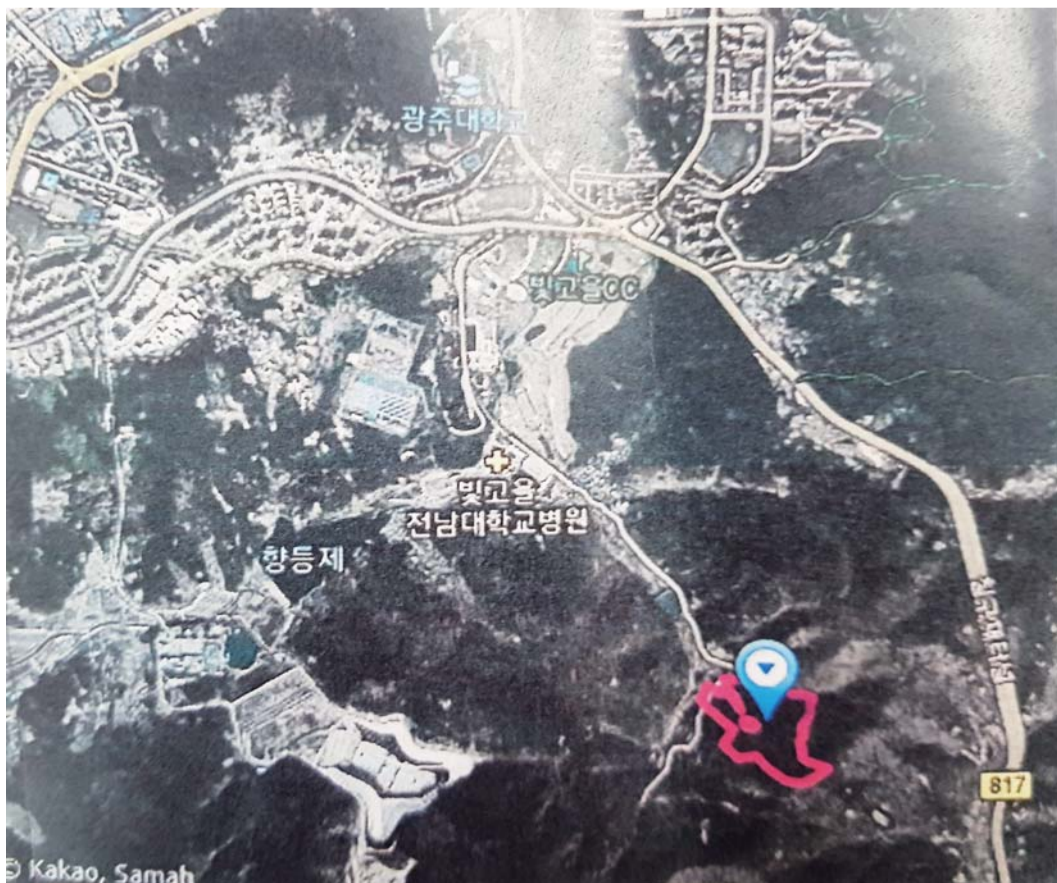
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역량을 측정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총 175개 지자체가 참여해 28곳이 선정됐다. 북구는 지역경제·정주여건·사회적 가치·재정역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북구 관계자는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서구, 11~13일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

광주 서구가 개최하는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극락교 인근 친수공원(사진)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익새밭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시민들은 영산강 익새길을 따라 펼쳐지는 익새축제에서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개막일인 11일에는 개막식과 생태환경사랑캠페인 자전거 대행진, 빛고을 가요 자차차가 열린다. 12일에는 서구민 노래자랑 결선, 퓨전재즈공연 13일에는 페막식과 전국아마추어 예술대회 본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익세계 운 좋은 날 황금익새찾기 ▲생태와 자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생태배움터 '나는 야생태박사' ▲생태환경 영화상영 ▲당신의 마음속 시 쓰기 ▲백일장 및 미술대회 등이 있다. 익새밭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하는 '익새사진관'도 운영된다. 어항만들기 체험,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우리가족 새집 만들기, 익새축제와 함께하는 아트피크닉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